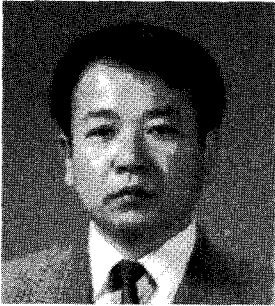


# 요통, 어깨결림 호소율 가장 높았다

진료시설 확충, 지속적 건강관리제도 정착돼야



손 석 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박사 예방의학 전문의

**전** 통지향적이고 보수성이 강한 우리네 농촌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대화의 추진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최근 보건의료의 동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따라 일차보건의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농촌지역의 보건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실점에서 보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는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뒤떨어진 점이 많다. 이는 의료체제나 제도의 미비, 적극적인 행정관리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주민의 인습이나 구체적인 해결의식

결여 및 건강관리 방법의 미흡 등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농촌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포함한 보건의료 공급자의 노력과 함께 수요자인 농촌주민들 스스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농촌지역의 질병양상은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의 여러 문제가 반영되어 호흡기계, 소화기계 질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감염증 및 기생충성 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이 상당히 많다. 특히 농업노동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도시민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러한 특이 건강장애로는 (1)농기계-기구 손상 (2)농약중독 (3)독사 교상 (4)비닐하우스 증후군 (5)농부중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조만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가 따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할 만한 기본 보건통계자료도 부족한 실정이고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전남지역 농부중 조사 실시

이러한 관점에서 1992년 우리 예방의학 교실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름 인식)하고 농촌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측정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농촌주민들이 가

장 많이 겪고 있다고 추정되는 농부중과 관련요인 규명을 위한 조사 사업을 전라남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실시하였다.

농부중은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주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 신체적 장애 증상군으로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호흡곤란, 불면, 어지러움 및 복부 팽만감 등의 여덟가지 증상을 묶어 칭한 것이다. 물론 농부중은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이지만 농촌주민에게 국한하여 특정한 직업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적절한 건강평가 방법이 없는 농촌주민들의 건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매우 유용한 건강지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부중은 비특이적 증후군으로 특정한 치료방법이 없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속에 실재하는 소위 육체적 과로, 정신적 긴장, 영양불량, 감염증 및 기생충 질환, 냉증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나타난다. 농부중 양성자의 50~90%에서 질환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농부중 점수가 높을수록 고혈압, 소화기 질환, 퇴행성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신경증과 같은 질환에 이환된 경우가 많고 이와같은 질환 발생의 선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부중을 특정질병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농부중을 순전히 의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및 농부중은 증상군이므로

농부중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고식적인 대증요법적 치료만을 강구하고자 하는 경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진다.

### 양성을 여자에서 더 높았다

전남지역 27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4차에 걸친 농부증 조사 결과 농부증 8개 증상 항목중 가장 호소율이 높은 항목은 요통과 어깨결림으로 계절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이들의 호소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농부증 양성률은 23.4%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 양성률이 높았다.

계절별로는 봄철에 가장 높고 농한기인 겨울철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부증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일반질환 유병여부, 연령, 성, 월수입, 가족수, 농업종사년수 등이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많거나 소수일 때, 농업종사년수가 길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여겨져 전반적인 농촌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농업생산성의 상대적 정체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지출구



조의 악화로 인하여 농민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인 빈곤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낮은 치료비 지불능력, 교통비 부담, 치료기간 및 소요시간의 증가를 가져온 의료이용편이성과 접근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적절한 건강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질병발생의 매개요인이 되는 위생상태도 적절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농촌주민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지역주민 자체노력도 필요

농촌의 건강실태는 단순히 의료인력과 시설의 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체적인 농촌사회 경제의 균등한 발전에 의해 제반여건의 향상이 이루어질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조에 의한 대책수립이 강구되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지역 주민의 주체적 노력도 필요하다.

농촌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의료자

원의 심한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의료인력과 시설의 부족, 공공보건기관의 부적정성 등도 한 몫을 차지한다. 따라서 진료시설의 확충, 재활 또는 물리치료 시설의 강화,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제도가 정착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가정간호사업이나 정신 및 노인보건 측면에서의 관심도 증대되어야 하며 농업의 기계화 및 영농방법의 개선, 영양상태의 개선, 문화시설의 확대, 상·하수 시설개선 및 환경위생관리, 주민의 편이시설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우리 농촌주민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으면 잔병이 따라온다는 생각이라든지,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이 아프다는 생각, 즉시적인 약물효과에 대한 기대 등 보건의료향상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의 제거도 필요하다. **농약정보**

## 상품화 유망한 향수의 꽃 할미꽃



정연권

구례군농촌지도소 화훼전문지도사

**할미꽃**(*Pulsatilla koreana* NAKAI)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속근성 다년초다.

양지의 풀밭에 자생한다. 온몸에 흰 털이 나있고 꽃줄기가 곱어 인생의 풍상을 다 겪은 할머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귀여운 손자에게 줄 꽃감을 손에 쥐고 있는 것같은 포근하면서도 애처로움을 갖게 한다. 할머니와 손녀의 슬픈 전설과 같이 꽃말은 '슬픔', '추억'이다.

고향의 향수를 강하게 느끼게하는 할미꽃은 분화로 상품화가 유리하고 화단 및 정원용으로도 적합한 자생화다.

### 1. 형태와 특성

온몸에 부드러운 흰 털이 덮혀있고 줄기는 없다. 여러 장의 잎이 뿌리로부터 나오며 긴 잎자루를 가지고 있다. 잎몸은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은 다시 얹아지면서

잎 가장자리에는 작은 결각이 있다. 초장은 30~40cm이다.

뿌리는 굵고 곧게 뻗으며 암적색을 띤다.

꽃은 사진1처럼 적자색으로 4~5월에 핀다. 꽃대는 곧게 나오며 그 끝에 한송이씩 고개를 숙이고 꽃이 피는데 고달픈 농사일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생각해 한다. 꽃은 총포엽으로부터 약간 긴 꽃대가 나와 그 끝에서 핀다. 꽃받침은 6개로 긴 타원형이고 길이 2~3.5cm, 폭 1.2cm로 백색털이 밀생한다. 암술과 수술은 여러개 있고 꽃밥은 황색이다.

꽃이 지고난 뒤에 회고 긴털이 사진2처럼 달리는데 성숙하면 날개모양으로 허공에 퍼져간다.

열매는 수과로서 긴 난형으로 길이는 5mm정도이다.

할미꽃 유사종은 표1과 같다.

### 2. 성분 및 약효

뿌리에 항균성 물질인 아네모닌(Anemonin), 잎에 강심작용을 하는 오키날린(Okinalin)을 함유하고 있다.

생약명으로 백두옹(白頭翁)이라 하며 해열, 수렴, 소염, 살균 등에 효능이 있고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사진2. 성숙한 할미꽃. 이 때가 종자 채취 적기이다.



사진1. 4~5월에 적자색의 꽃을 피우는 할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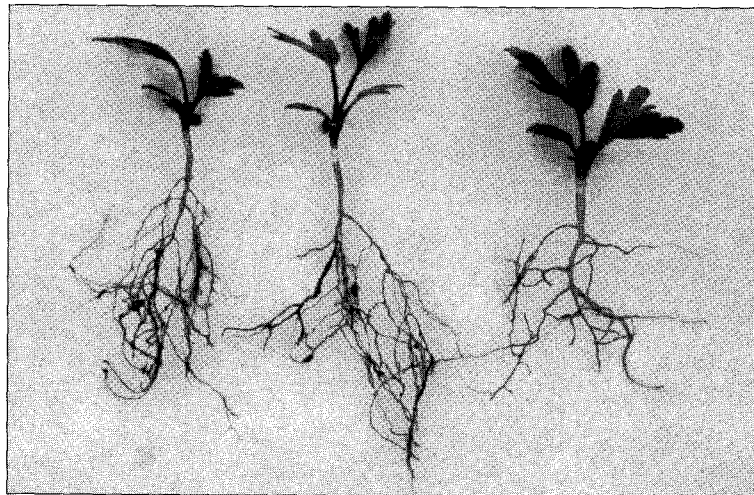
표1. 할미꽃 유사종

	개화기	화 색	특 성
가는잎 할미꽃	4~5	적자색	잎이 가늘고 끝이 뾰족함
분홍 할미꽃	5	분홍색	잎의 열편이 가늘고 길며 식물체가 적음
산 할미꽃	6~7	암적자색	할미꽃 보다 작고 잎에 털이 적음

사진3. 발아후 30일 정도 지나면 슈음작업을 해준다.



사진4. 본엽 3~4매의 가식적기묘



작용을 한다.

학질, 신경통, 이질설사, 치질의 출혈, 임파선염 등에 사용하는데 유독성 물질이므로 만지는데 주의해야 한다.

### 3. 번식

실생과 분주방법이 있다. 대량번식에는 실생이 유리하나 개화에 3년정도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단점이다.

#### 가. 실생

미성숙 종자를 채취하여 즉시 파종한다.

꽃이 진후 솜털처럼 날아가기 직전(사진2의 하단부)에 채취하여 파종상자에 산파한다. 종자에 솜털이 묻어있어 밀파될 염려가 있으므로 가는 모래나 질석을 섞어서 문지른 후 파종하면 골고루 파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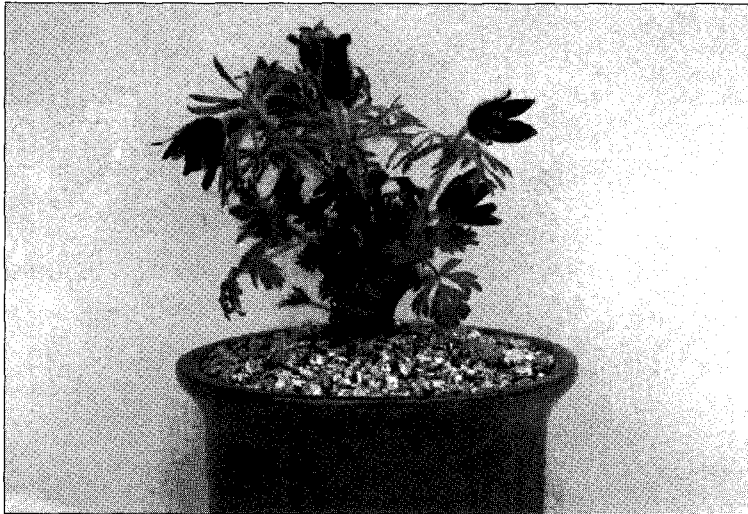
파종후 질석으로 얇게 복토하고 저면관수토록 한다. 15일 정도면 발아하게 되는데 발아율은 80%이상이다.

발아후 너무 심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하고 30일 정도 지나면 사진3처럼 균일하게 자라도록 슈음작업을 한다.

사진4처럼 본엽 3~4매가 되면 12~15cm비닐포트에 가식한다. 가식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흙을 많이 붙여서 심도록 한다.

관수후 30% 차광망을 설치, 활착을 돕도록 하는데 기간은 10~15일 정도이다.

사진5.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할미꽃 화분재배



개화까지는 3년정도 소요되므로 관리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활착되면 폭90cm 높이15cm정도의 두둑을 만들고 모래나 톱밥(왕겨도 가능함)을 2~3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퓌트를 충충히 놓아서 자연상태로 관리한다.

배수구를 잘 정비하여 물빠짐이 좋도록 하고 건조할 때는 고향에 물을 대어 물주는 노력을 줄인다.

추비는 깻묵물이나 제4종 복비를 주는데 4~5월엔 2주에 1회정도, 6~8월엔 한달에 한번정도 준다. 그러나 비절현상이 보이면 고향에 물을 대고 복비(18-18-18)를 고향에만 뿌리도록 한다.

**나. 분주**

시기는 3월이 좋다. 뿌리가 너무 잘리지 않도록 한다. 분주후 벤레이트

500배액에 침지후 심는 것이 좋다.

**4. 분화재배**

분화재배는 사진5처럼 다른 꽃과 색다른 감을 준다.

30대 이상은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며 백발의 할머니가 꽃감이나 사탕을 손에 쥐고 귀여운 손자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다정함과 포근함을 준다. 또한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모습도 연상되어 애처럽기 그지없다.

분화는 시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에서는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분화에는 분주한 것이나 실생번식 후 3년정도 지난 것을 이용한다.

배합토는 부엽, 발흙, 모래, 훈탄을 3:3:3:1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

는데 꼭 중성토양을 만들어 심도록 한다.

햇빛을 좋아하므로 양지바른 곳에 두고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한다. 유독식물이므로 어린이가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도록 한다. 가을에 잎과 줄기가 마르면 밖에 내어놓아 저온처리가 되도록 하고 새순이 올라오면 월1~2회정도 깻묵물이나 제4종 복비를 뿌려준다.

**5. 화단재배**

양지바른 화단이나 정원에 집단으로 심어 놓으면 할미꽃의 다정함과 포근함 그리고 애처로움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가 좋다. 적정산도는 6~7의 중성토양이다. 산성토양은 정식 15일전에 석회를 넣고 산도를 교정토록 한다.

완숙퇴비를 충분히 넣고 30×30cm 간격으로 집단적 식재를 한다. 화단바위를 이용하면 한층 운치가 있다.

할미꽃 사이에는 깨끗한 모래를 깔고 주위에 잔디를 심으면 고향의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느낌을 줄 것이다. **농약정보**